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지음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INSTITUTE FOR
MISSIONAL THEOLOGY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

발 행 | 2025년 8월 15일
저 자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 07. 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NNN-NN-NNN-NNNN-N

www.bookk.co.kr
ⓒ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2025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차례

들어가며: 옛 부르심, 새로운 살아냄 11

1단원 **선교적 공동체의 뿌리**

1과_ 예수 안에서 다시 울리는 옛 부르심 21

2과_ 아담: 온 땅을 위한 청지기 35

3과_ 아브라함: 모든 족속을 위한 복 49

4과_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와 열방의 빛 61

1단원 마무리 72

2단원 **창조 사명 – 우리는 세상을 돌보는 존재다**

5과_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과 일의 가치 83

6과_ 일의 지혜와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95

7과_ 반복의 거룩함: 일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 109

8과_ 미래를 심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피우는 희망 123

2단원 마무리 134

3단원 **사랑 사명 –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9과_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43**

10과_ 나그네를 환대하라: 경계를 넘는 사랑의 식탁 **155**

11과_ 사랑은 동행이다: 절망을 넘어선 헌신 **167**

12과_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들
: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더 큰 변화 **179**

3단원 마무리 **190**

4단원 **선포 사명 –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존재다**

13과_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 만민을 향하는 구원의 선포 **199**

14과_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포: 긍휼 **213**

15과_ 선지자의 자리: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다 **225**

16과_ 내일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증인 **239**

4단원 마무리 **250**

나가며: 계속되는 부르심 **255**

들어가며: 옛 부르심, 새로운 살아냄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심(요 20:21)을 중심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에서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합니다. 구약의 창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옛 부르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와 사명으로 '다시 울려 퍼지는지' 함께 고찰하며 선교적 공동체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앞으로 탐구할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의 모든 여정을 뒷받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각 과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전체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시작된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선교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며(참고. 요일 4:16),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사역이 나옵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존재하는 그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창조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에게로 무한히 확장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선교적 사명이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겸손하고 담대한 확신을 줍니다.

2. 모든 옛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아담의 창조,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사명 등 구약의 모든 '옛 부르심'과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찾고 새롭게 성취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

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이시며,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이방의 빛'이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구약을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읽고 옛 부르심을 우리 시대의 사명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핵심적인 해석의 틀입니다.

3. '부르심'과 '보내심'은 항상 함께 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특정한 목적, 즉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의 부르심'과 '세상으로의 보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 역동적인 긴장 관계가 선교적 공동체의 삶을 특징짓습니다.

4.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소망'은 끊임없이 교차한다

이 교재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겪는 우리의 한계, 즉 연약함, 실패, 죄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가 결코 끝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안의 소망'에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여정 전체를 통과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며 각 과를 탐구해 나아갈 때, 우리는 흩어진 지식들을 넘어 '선교적 공동체'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단원
선교적 공동체의 뿌리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1단원에서는 이처럼 장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탐구합니다. 이 '옛 부르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와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발견하며, 선교적 공동체의 신학적 토대를 놓게 될 것입니다.

Chapter 1

예수 안에서 다시 울리는 옛 부르심

1과_ 예수 안에서 다시 울리는 옛 부르심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전 세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어떤 실제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약의 모든 기록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교재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 완결적 구약 읽기'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고자 합니다.

1. 시작 질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보이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

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성경 속으로: 롬 15:4, 8-13

말씀을 충분히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보세요.

1) 바울은 '전에 기록된 바'(구약 성경)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까?(15:4)

2)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즉, 유대인)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까?(15:8)

3)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15:9-12, 인용된 구약 구절들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떠올려 보세요.)

4) 바울이 드리는 축복 기도(13절)에 나타난 '넘치는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전반부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연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는 이 연합의 신학적 뿌리가 바로 구약 성경과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를 통해 구약의 다양한 '옛 부르심'들을 살펴볼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즉, 구약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사명으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전에 기록된 바', 즉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을 선사합니다. 첫째,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둘째, 구약 속 인물들의 삶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인내'를 얻습니다. 셋째,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발견하며 '성경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교훈과 인내, 위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즉, 구약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모든 사역이 야말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확증하고 성취하는 핵심 사건임을 역설합니다(8절).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하시고 굳건히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그 참된 의미를 찾고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참고. 고후 1:20).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시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9절).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결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된 하나님의 오랜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구약 본문(시18:49; 신32:43; 시117:1; 사11:10)을 인용하며 이 사실을 힘주어 증언합니다(9-12절).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열방(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는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분

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논증을 "소망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13절). 여기서 바울이 간구하는 '넘치는 소망'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내용,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게 하셨다는 복음의 진리에 깊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소망'은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앞으로 다룰 구약의 다양한 '옛 부르심'들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선교적 공동체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3. 핵심 정리

1. 구약 성경은 단순한 과거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과 인내, 위로를 통해 궁극적인 소망을 품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아우르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분의 삶과 사역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 가운데, 구약 성경의 '옛 부르심'을 세상 속에서 새롭게 이어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4. 성찰하기

1.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야기나 약속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중요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 안에서 구약을 읽는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의

미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3.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새롭게 이어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옛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도록 할까요?

5. 한계와 소망

• **우리의 한계:**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분리하여 생각하거나,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방대한 내용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율법주의적인 해석에 빠져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놓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이스라엘처럼 배타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머무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 **하나님 안의 소망:**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경 해석 능력이나 신앙적 실천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당신 안에서 성취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위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재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선교적 공동체의 실제적인 능력의 근원입니다.

6. 공동체 나눔을 위한 질문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교회의 새로운 소명과 소망'에 대해 새롭게 깨닫거나 도전받은 점





2단원
창조 사명
- 우리는 세상을 돌보는 존재다

1단원에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옛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으로 다시 들리며,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선교적 공동체의 신학적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단원에서는 그 첫 번째 보내심이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사명인 창조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섬기는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일'과 '일상'이 어떤 거룩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사명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총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 안에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Chapter 5

창조의 동역자
: 하나님의 형상과 일의 가치

5과_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과 일의 가치

우리 대부분은 삶의 많은 시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창조 세계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창조 사명'은 우리의 일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과에서는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을 통해, 우리의 일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탐구합니다.

1. 시작 질문

'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성경 속으로: 창 1:26–31; 시 8

말씀을 충분히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보세요.

1)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창 1:26-28)은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동역자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 시편은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귀한 지위와 권한을 맡기셨다고 노래합니까?(시 8:5-8) 이 찬양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사명'을 어떻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까?

3) 창세기 1장 31절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와 시편 8편의 하나님 이름의 영광은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과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야 함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동역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파트너십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8편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사명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광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라고 감탄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

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5)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시 8:6)라고 노래하며, 창세기에서 부여된 다스림의 사명을 재확인합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감격스럽게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시편 역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9)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창조 세계에 가득함을 노래합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통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시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 사명을 다루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받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 되었다는 사실입니다(참고. 엡 1:20-22,

히 2:8-9).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 됩니다(참고. 계 21:5).

3. 핵심 정리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창조 사명'을 부여받은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2.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 이 사명의 목적입니다.

3. 이 창조 사명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은 단

순한 생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 됩니다.

4. 성찰하기

1. 개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일상적인 일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자세를 갖게 합니까?

2.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심히 좋았던' 모습과 그분의 '존귀한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역자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왜곡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참된 동역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 교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5. 한계와 소망

• **우리의 한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존귀함과 창조 사명의 위대한 부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은 고통스러운 수고와 경쟁의 현장이 되었고, 우리는 일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력감과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따라 일의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기보다 오히려 파괴하는 데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들의 다양한 직업적 소명을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로 구분하여 평가절하하거나, 사회 변혁을 위한 창조 사명의 실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구조적인 불의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개인이나 교회의 노력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 절

망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 **하나님 안의 소망:**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창조 사명에 참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볼 때,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체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 학업, 가사, 봉사, 예술 활동 등)이 어떻게 창조 사명에 참여하는 것인지 구체적

으로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방법 한 가지를 찾아 실천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일'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질문, 또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다짐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십시오.





3단원
사랑 사명
–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2단원 '창조 사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3단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사명인 '사랑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사명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요약해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마 22:37-40)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삶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구약의 사랑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실현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3단원에서는 이 위대한 계명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한 존재'로 빚어가며, 선교적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Chapter 9

가장 큰 계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9과_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가르침은 단순한 신약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구약 시대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명'의 핵심인지 고찰하고자 합니다.

1. 시작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오셨습니까? 이 두 가지 사랑 중 하

나만 실천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할까요?

2. 성경 속으로: 신 6:4-5; 레 19:1-18

말씀을 충분히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보세요.

1) 신명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신 6:4-5)

2)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구체적 명령을 수반합니까?(레 19:1-18)

3)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왜 연결되어야 합니까?(참고. 요일 4:20-21)

4) 이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통찰들을 제시합니까?

신명기 6장 4-5절, 곧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부름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성과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적인 헌신을 뜻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하며, 모든 신앙생활과 순종의 근본 동기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레 19:2)는 명령과 함께, 그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계명에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감정적 호의를 넘어 이웃의 유익을 자기 유익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에 구현하는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본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들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일차적으로는 언약 공동체 내의 동족을 가리키지만, 그 사랑의 원리는 혈연이나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존재, 특히 우리 주변의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이 '이웃'의 개념이 어떻게 '나그네'에게까지 확장되는지는 다음 10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참고. 요일 4:20-21).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단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참고. 빌 2:8), 이웃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참고. 엡 5:2).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명하심으로 사랑의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자신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참고. 롬 5:5)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핵심 정리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사랑 사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2. 사랑 사명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습니다.

4. 성찰하기

1. 개인: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얼마나 잘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결이 약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2.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 사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한계와 소망

• **우리의 한계:** 우리는 '사랑 사명' 앞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 인해 때로 쉽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쉽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나의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베풀거나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 두 가지 사랑을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한계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사회 구조 또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닫히게 합니다.

• **하나님 안의 소망:**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나 도덕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참고. 롬 5:8)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편견의 눈을 열어주시며,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사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깨진 세상에 치유와 화해, 그리고 정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6. 공동체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혹은 단절되어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이웃 중 한 사람을 정하여, 그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기록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계명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사랑 사명'에 대해 새롭게 깨닫거나 도전받은 점,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질문, 또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다짐 등을 자유롭게 기록해 보십시오.

4단원
선포 사명
–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존재다

2단원 '창조 사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했고, 3단원 '사랑 사명'을 통해서는 그 세상 속에서 타자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환대, 그리고 정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성실한 돌봄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4단원에서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선포'를 통해 증거하며,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선포 사명'은 단순히 언어적 전달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찬양과 공동체적인 증거를 포함하며, 앞서 다룬 창조 사명과 사랑 사명의 실천 위에서 더욱 진정성 있는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포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요 1:14)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행 1:8),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시편 96편을 통해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Chapter 1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 만민을 향하는 구원의 선포

13과_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 만민을 향하는 구원의 선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창조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사랑 사명)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교적 삶의 기초가 되며, 또한 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여호와께 나아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라고 힘차게 초청합니다. 이 시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시작 질문

'찬양' 또는 '노래'가 세상을 향한 '선교' 또는 '선포'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성경 속으로: 시편 96

말씀을 충분히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보세요.

1) "새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시 96:1-3)

2)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시 96:4-6)

3) “만국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시 96:7-9)

4)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심판은 세상에 어떤 소망과 기쁨을 줍니까?(시 96:10-13)

5) 이 시편이 ‘선포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편 96편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강력한 선교적 초청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고 외치며,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시 96:1-3). 이 '새 노래'는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향한 기대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새 노래'는 주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했지만, 신약 시대에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언약과 새 창조의 구원을 노래합니다(계 5:9).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열방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지만(시 96:5), 여호와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시 96:6). 따라서 모든 민족은 마땅히 그분께 나아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거룩한 예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시 96:7-9). 더 나아가,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민을 향한 것이며, 그분의 공평하신 심판이 임할 때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노래합니다(시 96:10-13). (참고.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

다는 약속이나,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과 선교적 열망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소망은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계 11:15, 19:11-16). 시편 96편의 우주적 찬양에 대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실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어(계 5:9),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새 노래'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넘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 4:23)고 선언하시며, 예배가 더 이상 특정 장소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행 2:11)은 시편 96편의 '만민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시편 96편은 예배 자체가 선교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초청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쁨의 노래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마 28:19-20, 행 1:8)의 성취이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3. 핵심 정리

1.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 그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새 노래'로 끊임없이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이는 선포 사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분의 임재는 모든 피조세계에 참된 기쁨과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다주며, 교회는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집니다.

4. 성찰하기

1. 개인: 나는 시편 96편이 촉구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과 행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단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열정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2.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 사회: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불의와 폭력,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편 96편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그분이 가져다주실 참된 평화의 소망을 어떻게 세상에 효과적으로 선포하며,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5. 한계와 소망

• **우리의 한계:** 우리는 종종 시편 96편이 노래하는 웅장한 찬양과 온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느끼며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입을 닫고 침묵하기 쉽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만의 예배 형식과 문화에 갇혀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부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도전, 종교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찬

양과 선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 **하나님 안의 소망:**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이나 유창한 선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게 될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시편 96편의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선포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위대한 우주적 찬양의 선율에 동참하여, 모든 민족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노래해야 합니다.

6. 공동체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96편을 매일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구원의 열정을 깊이 느껴봅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SNS나 다른 소통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기이한 행적'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거나 간증하는 '선포의 실천'을 해봅시다.

2.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선포'라는 메시지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질문, 또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다짐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십시오.

나가며: 계속되는 부르심

지금까지 우리는 총 16과에 걸쳐 '선교적 공동체 살아내기'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조 사명과 사랑 사명, 그리고 선포 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상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속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약의 모든 선교적 부르심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사명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선포 사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참된 의미와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삼중적 사명(창조, 사랑, 선포)을 통합적으로 살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복

음을 선포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재가 다룬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고민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고,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작은 열망이라도 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겸손히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재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과 성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날마다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 깊이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재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감수 김범식, 박성민, 순정현, 용진호, 우성현, 이성호, 이용훈, 이의석, 조아론, 최성근, 홍준의

지원 김효선, 양지은, 유재준, 이광민, 최병은, 한성복

자문 전소영

디자인 조해원